

중국 대외경제 정책(2)

중국 국유기업 비효율의 원인 분석

분석의 기점: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기업과 정부의 관계

- 기업은 정부가 지령한 목표 혹은 과제(norma)를 달성해야 하는 생산 단위. 자본주의 경제하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제조직의 기업은 존재하지 않음.
- 정부는 계획경제의 계획자, 기업성과를 평가 심사하는 조직,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상하 수직적, 종속적 관계 형성.
- 중국의 기업과 정부의 관계

정부와 기업간에 '부모자식 사이 같은 온정적 관계(Paternalism)'에 기초한 연성예산제약이 존재 (J, Kornai, 1992)

계획과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간에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국에서 보여지는 기업은 사회주의기업에서 정의되는 순종적인 행정적 생산조직, 애국심과 지도자에 대한 경애심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델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부에 순종하기도 하고 기만하기도 하며 때로는 읍소하기도 하는 존재

중국국유기업의 경영행위

- 사회주의 국유기업들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하에서 계획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로부터 투입물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목표산출량을 최소로 보고하려는 최적행위를 하게 된다.

- 또한 기업이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기업경영자가 문책을 받거나 해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 이로 인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크게 증가하여 기업의 만성적자는 개혁개방이전에 보편적인 현상이다.

- 이러한 기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의 대출로 보전하게 되며 이것이 후에 국유은행의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금융개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 고비용 저효율의 국유경제체제 형성

국유기업 비효율성 근원

1) 파산의 개념이 없다.

2) 연성예산제약이 존재기업의 만성적자와 도덕적 해이를 야기

3) 국가와 기업이 미분리 국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도 행정적인 기능(복지시설)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효율성이 저하

4) 인센티브 문제-모든 사람이 주인이나 기업이익을 획득하는 실제적 주인이 아니므로 기업 경영성과에 무관심기업경영효율 저하,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

이윤유보제

1. "이윤유보제"

- 특징- 기업이윤에 대한 조정

- 기존- 국가가 기업의 100%이윤을 가지고 감

- 방법과 목적: 개혁이전, 기업이윤을 국가가 100% 착취일정이윤 이상은 해당 국유기업이 유보하여 보너스, 채투자, 집체 복지 기금 등으로 쓸 수 있게 함. 즉 이윤유보제는 일종의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효율성제고를 꾀함. 적자국면을 탈피

2. 성과와 문제

1) 성과-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유발하는데 성공 기업의 생산성이 다

소 제고

2) 문제

보너스 차등지급 불만균등성과급

이윤 재투자하지 않고 상부에 뇌물, 재직소비, 과도한 종업원 복지 제공 등 소비성 지출

오히려 재정적자만 악화시키고 통화량 증가와 조세수입 감소로 경기과열, inflation 야기

청부경영책임제 (承包经营责任制)

1986년부터 시행

청부경영책임제(일명 承包制)란?

- 기업이 국가(기업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동안 상호간의 책임, 권리 및 이익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기업의 자산을 자주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제도.
- 즉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시도하는 특수한 형태

성과

- 노동효율이 향상 이윤유보율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금과 경영성과와의 연동이 분명해짐에 따라 노동효율이 제고
- 국가와 기업 간의 청부계약으로 인해 과거의 자주권 확대를 위한 개혁조치보다 기업의 경영자주권이 크게 신장 → 주체로서 지위가 보다 높아짐
- 투자권과 배분권에 있어서도 기업의 입지가 강화
- 기업의 이윤확대와 적자규모의 축소로 정부재정도 보다 건전화

한계 - 사회주의 기업제도의 근본적인 체제를 유지한 채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만을 도모

- 기업행위의 단기화
-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경영행위 만연 - 적자에 대한 책

임회피적자방지의 곤란